

2011.09.05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FAO, 아시아 지역에 조류독감 발생 경고

## 1. FAO(2011.08.29) 주요 내용

- FAO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AI백신이 효과를 보이지 않는 고병원성인 H5N1 AI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 H5N1 AI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.
- 베트남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는 철새의 이동에 따라 캄보디아, 태국,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함.
- WHO에 의하면, H5N1 바이러스는 2003년에 처음 나타난 이후로 565명이 감염되었고, 331명이 사망함. 캄보디아에서는 올해 들어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8명이 사망함.
- 또한 H5N1 바이러스로 인해 가금류 4억 마리 이상이 살처분 및 폐사로 인해 세계적으로 2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.
- 조류독감은 2006년 정점을 기록한 후 2008년 중반에는 302건까지 발병건수가 감소하였지만 2010~2011년에는 800건으로 증가함.
- FAO의 동물 질병국장인 후안 루브로스(Juan Lubroth)는 조류독감의 확산은 철새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함.
- 지난 2년간 철새의 이동이 몇 년간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지역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네팔, 몽골에도 바이러스를 확산시켰으며, 이들 지역도 영향을 받음.
- 후안 루브로스는 “야생 조류가 바이러스를 가져올지 몰라도 이를 확산시키는 것은 가금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의 인간의 행동이다”며, 바이러스 발생 억제에 위한 광범위한 감시와 준비를 촉구함.
- FAO는 방글라데시, 중국, 이집트, 인도, 인도네시아,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조류독감이 풍토병으로 남아있어 **올 가을과 겨울에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**

에 대비해 아시아 국가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함.

## □ IGC, 2011/12년도 국제 쌀 시장 전망

## 1. THE WALL STREET JOURNAL(2011.08.26) 주요 내용

- 국제곡물이사회(International Grains Council: IGC)는 2011/2012년도의 국제 쌀 재고량, 이월량, 생산/소비량, 수출/수입량 전망치에 대해 발표함.

## &lt;재고량&gt;

- 주요 수출국인 인도와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9년만에 국제 쌀 재고량을 상향조정함.
- 2011/12년도의 쌀 재고량 전망치는 이전 추정치보다 1% 증가한 **9,930만 톤**으로 전망됨.

## &lt;이월량&gt;

-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, 베트남, 파키스탄, 인도, 미국에서의 쌀 이월량은 2010/2011년도 대비 5.8% 증가한 **3,090만 톤**으로 전망됨.

## &lt;생산·소비량&gt;

- 2011/2012년도의 국제 쌀 생산량은 **14% 증가한 4억 5,730만 톤**이며, 소비량은 **22% 증가한 4억 5,650만 톤**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됨.

## &lt;수출·수입량&gt;

- 2011/2012년도 태국의 쌀 수출량이 **12% 감소한 880만 톤**으로 전망됨. 이는 태국정부가 비축물량을 채우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계획이기 때문임.
- 인도네시아는 나이지리아와 같이 2011년 세계 주요 쌀 수입국으로 국제시장에서 **210만 톤의 쌀을 수입할** 전망이다.
- 필리핀은 2010년에 주요 쌀 수입국으로 250만 톤을 수입하였지만 정부는 수입량을 감소시킬 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**10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**으로 전망함.

\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